불교총지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종보

총기 45년
2016년 6월 1일
음력 4월 26일
월 간 발 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0년 제199호

자비의 연등으로 하나되는 부처님 세상



▲ 서울연등회에 참가한 평화통일 기원등



▲ 총지사 봉축법회에서 법어를 내리시는 효강 종령 예하



▲ 동국대학교에서 봉행된 봉축법요식에서 관욕하는 통리원장 인선 정사

서울 연등회
(중요무형문화재제122호)

불기2560년 봉축 연등제가 서울과 부산등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봉행되었다. 5월 7일 서울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는 불교총지종을 비롯한 주요종단과 서울시내 사찰이 동참한 연등회가 봉행되었다. "얼쑤 한바탕 신명이 심장을 두드립니다"를 주제로 시작된 어울림마당은 희망의 함성과 웃음으로 가득 찬 화합의 잔치마당을 열었다.

초등학생부터 청소년, 성인으로 각각 구성된 연희단의 율동으로 분위기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번 연희단 공연은 많은 불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어 등 만들기 경연에서는 최우수상에는 조계종 안양 한마음선원이 수상했다.

이어 봉행된 연등법회에서는 총지종 인선 통리원장을 비롯한 주요종단 대표의 관불의식으로 룸비니 동산에 태자의 몸으로 나투신 아기 부처님 탄생을 축하했다.

명종,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봉축위원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모두가 우리가 비출 수 있는 마음의 거리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밝힌 소중한 빛이 온전하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고통을 나누니 마음은 맑아지고 빛은 더 밝고 투명합니다. 오늘 소중하게 밝힌 빛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밝힙니다. 이웃이 걸어가는 길을 밝힙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생동할 수 있도록 연등을 밝힙니다. 생명존중과 상생의 가치가 가장 우선하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할 사회이고 이 땅에 구현하는 불국토입니다."고 연등 축제의 개회를 선언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발원문을 통해 "우리의 통일은 민족 모두가 함께 정성을 다해야 할 불사입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정신은 통일불사의 지남指南이 될것이고, 용맹정진의 수행은 통일의 그날을 앞당길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불자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 땅에서는 통일된 번영의 불국정토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며 온누리에 부처님의 가지가 원만하여 평화가 깃든 맑은 세상이 되기를 서원했다.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스님의 행진 선언과 함께 봉축연합합창단의 축가로 연등제 출발을 알렸다.

불교 총지종은 광복의 의미를 담은 한반도 등과 평화를 만끽하며 어깨춤을 둥실 둥실 추는 남녀 입상을 앞세운 서울, 경인 교구 스승 및 교도 500여명과 포항수인사 '수인회' 교도, 불교총지종 사회복지기관 산하 임직원 등이 동참하여 진언 밀교의 법등을 화려하게 밝혔다. 동국대를 출발하여 동대문, 종로를 거쳐 종각까지 이어진 연등행렬은 수많은 서울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부산 연등 축제

지난 4월 30일 부산시 양정동 송상현 광장에서 점등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 '2016 부산연등축제'는 5월 7일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연합대법회를 봉행했다. 불교총지종부산, 경남교구(교구장 정인화 전수)는 스승 및 교도 약500여명과 동해중학교 탁상달 교장선생님과 교직원, 학생 300명이 참석하였다.

율동 한마당으로 식전행사를 시작한 연합 대법회는, 오후 6시 불교TV 염불공양회의 육법공양, 총지종 중앙종의회 의장 수현 정사(부산봉축위원회 홍보위원장)가 꽃 공양을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개회사, 삼귀의, 발원문, 대회사, 축가 등 의 순으로 진행 되었다.

대회장 범어사 주지 경선스님은 "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된 연등회는 부처님께서 오신 뜻을 다시한번 되새기고 방방곡곡 마다 도심 거리마다 지혜와 자비의 등불로 수 놓는 우리의 전통문화"라며 "구덕운동장을 가득 메운 수만개의 정성어린 연등이 구덕벌에서 대청로로 이어질 때 부산시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 국운융성과 지역발전 그리고 세계평화로 승화될 것"이라고 부처님께 서원했다.

취타대를 선두로 부산봉축위원회 임원단과 내빈들의 행진으로 시작된 연등행렬은 구덕운동장을 출발하여 구 법원 앞을 거쳐 용두산 공원 입구 대청동 사거리로 향했다. 총지종 부산, 경남교구는 교구 및 사원 만장 등을 선두로 준제결인, 아기부처님 탄신불, 관세음보살 등 장엄등 행진을 시작했다.

풍물패의 신명나는 우리가락에 맞추어 종자관을 새긴 연등을 들고 즉신성불의 염원을 담은 개인 등을 든 교도들이 뒤를 따랐다.

총지종 부산, 경남 교구 연등 행렬은 회향한마당이 펼쳐지는 부산 중구 대청동 사거리까지 행진했다.

서울 · 부산=김종열 기자

지면안내

1면 불기 2560년 연등회
2면 김 기자가 가다
『심인행 전수님
제16주기 추선불사』
3면 기로스승 지공정사
동해중 장학금 기탁
5면 부 산 · 경남교구 및
정각사 봉축행사
6~7면 서울연등제 및
각 사원 봉축행사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시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시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弘布)합시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시다.



김기자가 가다

남은 육신 마져도 다 내어주고 가신
진정한 수행자 심인행 전수님



▲ 심인행 전수님 영정



▲ 제16주기 심인행 전수님 추선불사(실지사 서원당)



▲ 고려대 의과대학 감은탑을 참배한 실지사 교도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홍식)은 매년 4월 세 번째 목요일에 의학교육과 발전을 위해 헌체(獻體)한 고인들의 뜻을 추모하는 '감은제(感恩祭)'를 개최한다.

올해 행사에는 의과대학생과 교직원, 유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의학발전을 위해 시신을 기증한 73분의 숭고한 뜻을 추모했다. 개회식으로 시작된 이번 감은제는 의과대학장을 비롯해 유가족 대표, 학생 대표의 추모사와 함께 유가족, 학생들의 단체 헌화와 묵념으로 이어졌다.

이홍식 학장은 추모사에서 "의학 실습 교육과 연구 발전을 위해 시신 기증이라는 고귀한 결정을 내려주신 기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추모의 말씀을 전한다"며, "기증자분들의 헌신과 생명의 존엄함을 늘 되새기며 바른 인술을 펼치는 참된 의사를 양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이날 감은제는 우리 종단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 종단의 입교개종과 더불어 25년간 중생교화의 대업을 수행하시고 홀연히 열반에 드시는 순간까지 법체 마져 중생을 위해 주고 가신 심인행 전수님 때문이다. 지난 2000년 열반에 드신 스승님은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법체를 고려대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헌체했다. 살아계시면 병인생으로 올해 91세를 맞았을것이다. "빈몸으로 왔다 부처님의 법을 만나 진언염송 정진 한것 만으로도 할것은 다했다."고 담담히 열반에 드셨다고 심인행 전수님의 장녀인 실지사 신정회장인 인명화(정경자) 보살은 회고 했다.

심인행 스승님은 경주 출생으로 일본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신여성이었다. 일본 기후현 무의 고등 여학교를 1943년에 졸업하고 해방과 더불어 고국으로 돌아 왔다. 조용한 성경으로 요리와 바느질을 잘하시는 한마디로 현모양처셨다. 창종 초기 종단의 법의가 완전히 제정되기 전에는 뛰어난 바느질 솜씨로 손수 스승님들의 법의를 지어 공양했다. 원정대성사의 법의는 당연 심인행 전수님의 정성으로 지어졌다.

기로스승 선도원 전수님은 "조용한 성격으로 하루에도 몇번씩 교도들의 집을 방문하고, 신행 상담을 해주시던 모습이 지금도 아련합니다."며 자상한 말로 교화에 매진하시던 모습을 추억했다. 심인행 스승님은 특히 만두를 잘 빚었다. 스승님이 만두를 빚는날은 교도들의 잔칫날이었다. 모두를 위해 정성으로 맛을 낸 탓이다. 일본에서 고등교육을 마친신 심인행 스승님은 서예에도 조예가 남달랐다. 한글과 한문을 모르는 교도들을 위해 직접 가르친일은 아직도 교도들 사이에 유명한 이야기다.

5월 21일 심인행 전수님의 제16주기 추선불사가 봉행된 실지사 서원당에는 스승님의인도로 총지종에 입교한 교도들과 유가족이 한지리에 모였다. 실지사 주교 법우정사의 집공으로 봉행된 불사에서 교도들은 스승님의 교화와 진언염송의 공덕으로 실지사가 발전하고, 극락왕생을 지극히 서원했다. ㅂ접우 정사는 추도사에서 "생전에 교화를 위해 불철주야 가리지 않고 불편하신 몸으로 헌신하시고,늘 자비로운 미소로 제자들을 배려하셨습니다. 끝내는 열반하시면서 스승님의 법체를 우리나라 의학 발전을 위해 연구용으로 기증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스승님의 일생은 희생과 헌신과 베품으로 일관 하셨습니다."며 스승님의 법을을 추도했다.



▲ 뛰어난 바느질 솜씨로 생전에 만드신 복주머니

심인행전수님은 1973년 10월 부터 실지사 교화를 시작으로 중앙종의회 의원, 통리원 사회부장 등을 역임하고 종단 발전에 기여하고 총기 29년 5월 21일 열반에 드셨다.

실지사 = 김종열 기자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눠요

관성사	황성녀	4/28	10,000
	인 선	5/23	20,000
	김병석	5/10	10,000
기로스승	대 관	5/23	10,000
	밀공정	5/23	10,000
	법수원	5/23	10,000
	법장화	5/23	10,000
	법지원	5/23	10,000
	불멸심	5/23	10,000
	사홍화	5/23	10,000
	상지화	5/23	10,000
	수증원	5/23	10,000
	선도원	5/23	10,000
	총지화	5/23	10,000
	안주화	5/23	10,000
	일성혜	5/23	10,000
	해 정	4/26	10,000
개천사	강순시	5/17	10,000
	전세형	5/7	30,000
밀인사	정정희	4/29	5,000
	이기상	5/10	10,000
	안옥진	5/10	10,000
	이성수	5/10	10,000
	박주연	5/10	10,000
	이수연	5/10	10,000
벽룡사	양정현	5/3	10,000
	양지현	5/3	10,000
수인사	정순득	5/16	10,000
	무명씨	4/29	10,000
선립사	심지장	5/19	10,000
실지사	박병성	5/18	10,000
	이순명	5/18	10,000
	정경자	4/27	10,000
	조성우	5/2	10,000
실보사	이순옥	4/26	10,000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5/25	50,000
	강경화	5/25	10,000
	강경화	4/29	10,000
	구미자	5/2	10,000
	김지영	4/26	10,000
	김지영	5/25	10,000
	김용미	4/27	20,000
	김용미	5/25	10,000
운천사	무명씨	5/18	20,000
	무명씨	4/14	20,000
정각사	변순개	5/4	10,000
	조성화	5/25	10,000
	김문수	5/11	10,000
초록어린이집			
	황화성	5/25	30,000
총지사	박정희	5/13	10,000
	백지순	5/8	30,000
	신용도	5/13	10,000
혜정사	최영례	5/20	10,000
	정은선	5/2	10,000
화음사	무명씨	5/3	10,000
흥국사	지 정	5/18	20,000
사원무기명			
	김갑선	5/19	10,000

후원회 가입안내

4월26일부터 5월25일까지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스승님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스승의 날 서울·경인 교구 보은 행사



▲ 감사의 꽃다발을 전달하는 김은숙 지회장

총지종 각 사원의 신정회는 5월 17일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경인 지역 신정회(지회장 만덕장 김은숙 보살)는 미사리에서 효강 종령 예하와 인선 통리원장, 법경 서울·경인교구장 및 지역 스승님들과 기로스승을 모시고 공양을 올리는 자리를 가졌다. 김은숙 신정회장은 효강 종령 예하께 꽃 공양을 올리며 "즉신성불의 진언 밀법의 길로 나아가게 해 주시는 종령 예하를 비롯한 모든 스승님들께 감사의 경배를 올립니다. 항상 건강하신 모습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요"라며 스승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인선 통리원장은 인사말에서 "해마다 스승의 날을 기념해 보은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교도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진언염송정진을 통한 즉신성불의 대도를 구현하는 화합된 총지종의 교도가 되기를 서원합니다."며 자리를 마련한 신정회에 감사를 전했다.

법경 서울·경인교구장은 "오늘 이 자리를 마련 해주신 만덕장 김은숙 지회장님과 각 사원 신정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스승과 교도가 돈독한 신행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교구가 되기를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를 서원합니다."며 인사말을 했다.

마니합창단의 스승의 은혜 음성 공양으로 분위기를 더한 이날 행사는 정성으로 준비한 공양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기로스승 지공 정사 동해중 장학금 천만원 기탁

인재불사가 최고의 교화입니다.

총지종 기로스승 지공 정사가 지난 5월 18월 통리원을 방문 학교법인 관음학사 이사장인 통리원장 인선 정사에게 종립 동해중학교에 장학금 일천만원을 괘척했다.

지공 정사는 "불교의 미래는 인재불사에 달려있다고 평소에 생각해 왔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국가와 나라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불교적 인재 양성의 밑거름이 되기를 서원합니다."며 장학금을 전달하며 소감을 말했다.

지공 정사님의 장학금을 전달받은 학교법인 관음학사 이사장 인선 정사는 "종단을 위해 모든 정열을 다바쳐 일하신 노 스승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스승님의 정성으로 불교 인재양성의 큰 힘이 될것입니다."며 소중한 금원에 대한 인사를 전했다.



▲ 기로스승 지공정사 장학금 기탁식

기로스승 지공 정사는 1944년 일본에서 태어나 경남공업고등학교를 마치고 염색업계에 오래 종사했다. 1999년 총지종 중앙교육원을 수료하고 승직에 들어 밀행사, 실지사 주교, 제8대 중앙종의회 의원, 사감원 사감위원, 대구·경북 교구장,유지재단 감사, 사감원 부원장 등 종단의 주요 요직에서 봉직했다.

2006년 청정지 정사에 승서됐고, 2014년 기로스승으로 진원했다.

관성사 신축 지진불사 봉행

사대문안 유일한 총지도량으로 복합문화도량으로 조성



▲ 관성사 지진불사 시삽식

불교총지종 서울·경인교구는 5월 23일 오전 11시 관성사(주교 인선 정사) 신축 지진불사가 서울 종로구 돈의문 재개발 지구현장에서 봉행됐다. 총무부장 우인 정사의 집공으로 총지종 정통의궤에 따라 봉행된 지진불사는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한 집행부와 서울·경인 교구스승 및 신정회 김은숙지회장, 관성사 홍순화 신정회장 등 교도들이 동참했다.

서울·경인 교구장 법경 정사는 발원문에서 "새롭게 장엄하는 관성사가 일체중생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젊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청년도량이 되게 하시고, 고통과 괴로움에 허덕이는 중생에겐 감사와 선약의 도량이 될 수 있도록 법향을 내려 주소서. 나아가 총지종의 무궁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이 되게 하시고, 일체 교도가정에는 행복과 건강, 화목과 평화가 길이 길이 깃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옵소서."라며 신축 불사하는 관성사와 종단의 안녕을 서원했다.

관성사는 종로구 돈의문 지구 재개발 현장에 대지 약 200여평에 5층 건물로 복합문화도량으로 선보이게 된다.

통리원 호성타운 신축 지진불사



▲ 호성타운 지진불사 후 기념촬영

통리원 역삼동 호성타운 신축 지진불사가 5월 18일 통리원 주관으로 봉행됐다. 인선 통리원장 및 집행부와 교무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인정사의 집공으로 열린 불사에서 총지종 교화 발전과 공사 안전을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원만 성취하기를 서원했다.

호성타운은 건축한지 30여년이 지나 지반 침하로 인한 건물 붕괴의 위험이 높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종의회에 보고하고 심의 의결을 거쳤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종무원의 이사가 끝나면 철거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불교방송 2016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개최

통리원장 인선 정사 참석 주요 안건 심의

불교방송이사회(이사장 종하 스님)는 5월 23일 마포 가든호텔 2층에서 2016년도 제2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등 종단 대표 이사들과 재가 이사들이 참석하여 성원을 이루었다.

이날 주요 안건은 부산불교방송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과 기타 안건으로 이사들 각자의 의견과 사안 현황에 대한 회사의 설명을 들었다.

부산 불교 방송 신축 부지는 부산항 북항(부산역 뒤편) 재개발 지구 내에 매입하고 사옥을 건립하여 불교미디어와 문화의복합 타워로 건축한다는 계획이다.

마산 운천사 부림합창단 창립 2주년

아름다운 음성공양 교도들에게 선사



▲ 단향사 헌공불사에서 공연하는 부림합창단

마산 운천사 부림합창단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창립 2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단원들의 피나는 노력과 스승님들의 지원으로 이제는 사원 합창단을 넘어 외부 행사에도 초창되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지난날 통영 단향사 헌공불사에 동참한 합창단은 종단의 의식곡과 축가를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 전 공양해 동참 대중들의 박수를 받았다.

단원들의 지도를 맞고 있는 싱어송 라이터 이자 작곡가인 박건우 선생은 "다른 어떤 합창단 보다 열정이 대단합니다. 또한 모두가 가족 같은 분위기라 서로 모자라는 점을 보완해 주며 즐거운 마음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며 합창단 지도의 소감을 밝혔다.

지휘자 박건우 각자는 현재 부림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며 오륙도에서 매주 공연하고 있다.

이혜주 단장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공덕으로 합창단이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 좀더 열심히 연습하여 총지종의 다른 합창단과도 실력을 나란히 하고 싶습니다."며 창단 2주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마산=운천사 고지현 통신원



불교의 선정 48 생활 중의 정념 6

함께 수행하기 공주(共住)



화령 정사 / 철학박사 중앙교육원장

정념에 의하여 인생을 '갑'으로 살아라

자아에 집착할수록 자아를 잃게 된다 정념으로 무아와 무상을 관해야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오관을 활용하여 정념 수행을 하는 방법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차를 마시거나 향을 음미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음악이나 미술 등을 활용하여 하는 방법도 있다. 그 이외에도 서예나 독서, 사경, 진언 염송 등도 정념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된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정념 수행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운전이나 청소, 설거지 등을 하면서도 마음을 집중하고 정념에 들어갈 수 있다. 정념 수행은 이처럼 혼자서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만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일상생활에서 정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화를내는 것을 바라보는 것과 정념을 통하여 마음속에 환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인의 생활은 물질 위주의 생활이 되다 보니 항상 긴장 속에서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간다. 자신의 삶을 자주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돈이면 다된다는 생각과 함께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일어나는 욕심과 그것을 이루지 못해 생기는 분노가 더욱더 치솟는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미줄에 얽힌 것처럼 욕심이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치솟아서 다른 사람을 이유 없이 해치거나 사회를 원망하기도 한다. 물질과 금전 위주의 현대는 이처럼 탐진치 삼독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치성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스트레스와 분노로 스스로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도 정념은 반드시 필요하다. 화가 날 때는 우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여 화가 치밀어 오르는 모양을 조용히 바라보도록 해야 한다. 화가 극도로 치밀었을 때는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호흡이 거칠어지며 어깨가 들썩 거리게 된다. 그리고 화의 원인을 바깥의 누군가에게서 찾고 혹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자신을 화나게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렇게 생각하면 화는 갈수록 더 치밀어 오른다. 화가 난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큰소리를 치거나 욕을 해대면 우선은 좀 시원한 것 같지만 근본적인 해소는 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얼른 호흡을 가다듬으며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면서 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가만히 응시하는 것이다. 마치 소방대원이 불이 나면 얼른 불부터 꺼야지 누가 불을 질렀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면 불을 끄는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과 같다.

화가 날 때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관찰하며 하나, 둘, 셋, 하는 식으로 10까지 7~8번씩 반복하여 숨을 센다. 화가 날 때뿐만 아니라 극도의흥분 상태에 있을 때에도 호흡을 가다듬으며 자신을 관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스포츠 선수나 극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어떤 일들은 호흡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호흡만 컨트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 터무니없는 실수도 많이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탐진치는 항상 연쇄적으로 반응한다. 예를 들면, 어리석은 마음에서 분에 넘치는 것에 욕심을 내어 가지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것을 손에넣지 못할 때는 화가 치민다. 자기의 목적을 방해한다고 생각되는 것에 화풀이를 하거나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면 화가 치미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며 그 결과는 어리석게도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으려고 들다가 더 큰 낭패를 보기도 한다. 탐진치의 결과는 괴로움이다.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의 삶은 항상 이러한 패턴을 반복하면서 괴로워하다가 일생을 허비하고 만다.

우리가 정념 수행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평소에 사념처 수행을 한다. 사념처 수행의 관건이 되는 것이 호흡관찰이며 그 보조수단으로서 진언염송, 절하기 혹은 음악이나 미술, 서예 등을 통하여 마음을 안정시키는 훈련을 한다. 더 나아가서는 설거지에서 방청소, 운전 등을 하는 동안에도 항상 자신을 놓치지 않고 살피는 훈련을 한다. 이때에도 관건이 되는 것은 호흡 관찰이다. 극도의 흥분과 스트레스를 호흡관찰로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도 호흡을 통하여 심신을 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숨을 들이 쉬면서 우주의 맑은 기운이 내게 들어와 나의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생각하고 숨을 내쉬면서도 내 몸 안의 나쁜 것들이 모두 배출되면서 나의 심신을 편안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호흡을 반복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해지면서 삶에 여유가 생긴다. 우리의 생사가 '호흡지간'에 있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다.

정념으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면 여기에 어떤 영향을 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기쁨이 일어나는 것도 무상이요 불쾌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단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만드는 것으로서 다 무상한 것이다.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는 것은 심리적, 생리적 조건이 조화를 이루어 그렇게 되는 것으로서 다른 색법이나 심법과 마찬가지로 무상한 것이다. 우리는 정념을 지니고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한 변화를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기쁨이 일어나건 불쾌한 생각이 들건 그러한 마음을 호흡을 가다듬으며 조용히 관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모든 생활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다가올 뿐 아니라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자주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자아에 집착하면 할수록 도리어 자아를 잃어버리게 되며 자아를 버릴 때에 도리어 참된 나를 찾게 된다는 이치를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바쁜 일과와 생활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한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나가기 싫은 회사를 나가는 것도 자기만을 위한 온전한 시간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삶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 속박당해서 자신은 언제나 시간이 부족하며 다른 사람의 희생양이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함정은 바로 이런 것에 있다. 즉,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어떤 업무를 할 때에 그것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대가나 시간을 얻기 위하여 남을 위해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불만투성이가 된다. 일은 끝이 없고 상사는 끊임없이 자기를 옥죄며 식구들도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 자신을 위한 시간은 갖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어 그 모든 일이 자신의 것이며 자기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일의 능률도 오를 뿐 아니라 일을 즐기게 되므로 자신의 시간을 훨씬 폭넓게 가지는 셈이 된다.

인생을 '갑'으로 살 것인가 '을'로 살 것인가는 자신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 일을 대하든 사람을 대하든 거기에 정신을 기울여 그 시간을 온전한 자신의 시간으로 만들 때에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과 보람은 자신의 것이 되며 거기에 소요된 시간은 남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시간이 될 것이다. 피동적이고 타의에 의하여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매 시간 정념을 지니고 닥쳐오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거기에 몰두하여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것이 곧 자신의 시간이 되고 자신에게 성취감과 기쁨을 가져 오는 삶이 될 것이다. 그러한 삶이 지속되면 여가가 생길 때에도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가 있다. 남에게 휘둘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정작 여가시간이 생겨도 무엇을 할지 몰라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린다든가 기껏해야 술을 마시고 잡담하며 무료하게 보내다가 도리어 피로가 누적된다.

정념을 지니고 일상에 임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든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던 휴식을 취하던 항상 자신을 놓치지 않고 그 시간을 유용하고 보람 있게 보낼 수가 있게 된다.

정념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일이든 휴식이든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자신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은 타인과 주위 환경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정념의 힘이다.

〈계 속〉



부산 신명나는 부처님 오신날 어울림 한마당

『정각사』 주변 신축 아파트 단지 주민들 대상 다양한 체험



▲ 삼광사 점등 대법회 축사를 하는 중앙종의회 의장 수현 정사



▲ 정각사 입구에 마련된 연등 부스



▲ 정각사 처음으로 육법공양을 올린 각자님들

는 다양한 전시와 놀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봉축 법요식에서는 정각사 최초로 각자들이 육법공양을 올려 화제를 불러 모았다. 최근 신축된 정각사 주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불교체험 한마당에는 아기부처님 관욕대, 만다라 합창단 홍보부스에서는 총지종 홍보와 정각사 안내를 하고 따뜻한 차공양을 나누었다.

또한 윷놀이, 단주 만들기, 컵등 만들기, 만다라 색칠 등 정각사를 찾은 많은 교도와 불자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했다.



▲ 정각사 보살님들의 봉축 축하공연



▲ 양정 송상현 광장에 설치한 연등회 부스



▲ 사원을 방문한 많은 불자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동해중학교 교장 탁상달

행복한 봄 날
길상의 부처님 앞에서
하늘처럼 마음 비우고
온 산하에 고운 빛깔로 채색할
정각사의 연등불 놀이에 봄빛이 참 좋아라

보리수 같은 색깔 짙은 깨달음에
연꽃 같은 향기로
향불 지피고
찬미하는 그 소리로 산천을 울네

가슴 가득 끌어안은 이 불사의 터전에
부처님의 나투신 위덕
도래 하리니
불국토의 찬연한 서광 옮겨 주소서

천상에 울려 퍼진 자비의 말씀
세세만년 다하도록 존귀한 법회
불가의 인연 공양에 가슴이
뜨겁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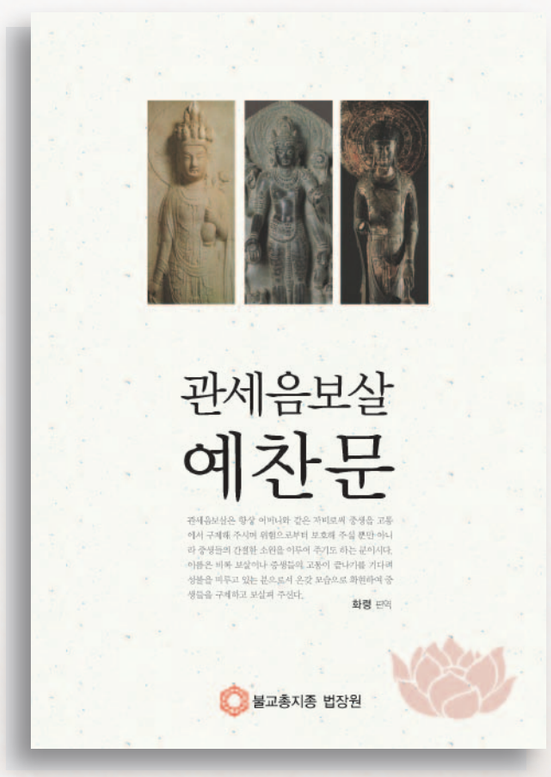
절망 속에 사는 이에
등불을 주고
고통 속에 사는 이에
평안을 주며
아픔 속에 사는 이에
건강을 주니
삼독에 찌든 우리 마음도 천강의 달이구나

아! 오늘은 좋은 날!
참 좋은 날!
날마다 좋은 날 그날!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꽃 쟁반 올려놓고 돌탑 쌓으며
청정한 마음으로 님을 찬탄하리니
이 겸손한 도량 한 모퉁이에서
사리자여!
생명을 가진 중생이여!

딴 마음 쓸 일 없이 그냥 놀러와
정각사 앞마당에서 돗자리 펴고
해와 달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온누리 비추는 허공까지도
한 송이 연꽃 같은 보살이어라.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화령 편역 | 불교총지종 법장원 발행
정가 15,000원 | 법보시가 8,000원 (10권 이상)

《관세음보살 예찬문》 법보시로 무량복덕 쌓으시기를...문의전화 02-552-1080

이 책을 읽으면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저절로!!!

관세음보살 예찬문

"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온화하신 자비 광명 온누리 비추시네
무명 중생 괴로움 모두 살피사 빠짐없이 골고루 건져주시네"



- 관세음보살은 누구인가?
- 관음경
- 천수경
- 신묘장구대다라니해설
- 관세음보살 관련 각종 진언
- 옴마니반메훔의 의미와 수행법

총지종 전국 서원당 일제히 봉축 법요식 봉행

진리의 세상 부처님 오신날

불교총지종 봉축 법요식이 총본산 총지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되었다.

효강 종령 예하를 모시고 봉행된 총지사 봉축 법요식은 법등 정사의 집공으로 육법공양, 훈향정공, 대중불사, 종령 법어, 축하공연의 순으로 진행됐다.

효강 종령 예하는 법어를 통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혜로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일체중생을 고통에서 해방하는 자비의 등불을 밝히시길 바랍니다."며 일체중생이 다함께 잘사는 사회가 되기를 서원했다.



▲ 연등제에 참가한 서울 · 경인 마니합창단



▲ 동국대 운동장에 모인 총지종 스승 및 교도



▲ 즐거운 표정의 참가 교도



▲ 연희단 율동을 함께하는 스승님들



▲ 연등행열의 선두에 선 통리원장 인선 정사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일원 어린이집



· 맑고 밝은 어린이 · 자율적이며 더불어 함께 크는 어린이
·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린이 · 이웃,나라,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

일원어린이집 : 강남구 광평로 3길 21 ☎ 02.495-3221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강남구 헌릉로 590길 63 리엔파크 5단지 아파트 관리동 1 층 문의. 02-445-2326



▲ 서울 연등제에 참가한 평화통일 서원등


▲ 서울연등제에 동참한 스승님들


▲봉축법회 후 즐거운 시간을 가진 운천사


▲ 봉축법회 후 기념촬영한 실지사 교도들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일원어린이집(원장 하재희) 원아 20여명이 출연하여 즐거운 댄스를 선보여 교도들의 환호와 갈채를 받았다. 마니합창단(단장 손경옥) 중창단의 찬불가 공연, 최혜선 보살의 섹소폰 연주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했다. 총지사 2층 원정 기념관에서는 교도 자녀들을 위한 에니메이션을 상영했다. 교도들은 이번 제등행열에 참가한 평화통일 기원 한반도 등과 어울렁더울렁 연등에서 기념촬영을 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1층 현관에서는 팝콘과 음료수도 제공했다.

서울 실지사(주교 법우 정사)에서는 약 200여명 이동참한 가운데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다. 교도들은 다함께 공양을 하며 부처님 오신 날을 되새겼다.

대전 만보사(주교 승원 정사)는 오후 7시 영식천도 불공을 마치고 만보사 인근을 제등행진을 했다. 교도들은 법복을 입고 정성껏 준비한 연등을 들고 부처님 오신 큰 뜻을 이웃에게 전했다. 동참자들은 자비와 평화가 함께하는 사회가 되기를 서원했다.

마산 운천사(주교 정원심 전수)는 봉축법요식에서 지난해 창단2주년을 맞이한 부림 합창단의 축하무대를 마련했다. 고운 한복을 입은 단원들은 이날을 위해 열심히 연습한 찬불가를 교도들에게 음성 공양했다.

통신원=총지사 이인성, 실지사 홍정숙,
만보사 유복근, 운천사 고지현,
이미숙, 박보경, 이진숙
정각사 이상록, 김병구 소장(사진)


▲ 총지종 풍물패


▲ 연등을 들고 행진하는 서울 경인 교도들


▲ 총지사에서 열린 일원 어린이집 원아들의 율동 무대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서초 구립
포레스타 7단지 어린이집

서울시 서초구 청계산로 11길 7-12 708동 1층 / ☎ 070-7204-2030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바라밀 공부방
청소년들의 활기찬 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051)552-0705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법천사 수교)

밀교연재 깨달음의 세계 · 불보살의 도량,
법경정사의 만다라 이야기 (28)

금강계만다라의 사인회(四印會)



▲ 그림1) 금강계만다라의 사인회 (흰색 네모가 사인회다)

금강계만다라의 사인회(四印會)는 그림1)과 같이 구회만다라(九會曼荼羅)의 왼쪽 중에 가장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 호에서 살펴본 공양회의 위쪽에 해당한다.

사인(四印)이란 중존(中尊)을 사존(四尊)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비로자나불과 사불(四佛), 사보살(四菩薩)의 관계가 모두 중층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즉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사불이, 사불을 중심으로 사보살이 있고, 16대보살, 공양보살, 사섭보살 등의 배열이 모두 중존(中尊)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배열의 만다라를 사인회(四印會)라고 한다.

또 사인(四印)은 대만다라, 삼매야만다라, 법만다라, 갈마만다라라는 네 가지의만다라, 즉 사만(四曼)에 의하여 금강계 만다라의 성신회, 삼매야회, 미세회, 공양회가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총섭하여 사인회(四印會)라 한다. 그래서 사인회는 그림1)에 보이는 것과 같이 제존(諸尊)들의 형상(形像)과 삼매야형(三昧耶形)이 혼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인회의 가장 큰 특징은 앞에서 살펴 보았던 성신회나 삼매야회, 미세회, 공양회와 달리 오불, 사바라밀보살, 16대보살등의 기존 37존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중앙의 비로자나불과 대각선 사선에 있는사친근보살(四親近菩薩)과 사방 사불(四佛)의 사친근보살(四親近菩薩), 네 귀퉁이의 사공양보살(四供養菩薩)만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두 13존(尊)이다.

이 가운데 비로자나불의 사친근보살(四親近菩薩)은 사바라밀보살(四波羅蜜菩薩)을 말하며, 여기에는 금강바라밀보살(金剛波羅蜜菩薩), 보바라밀보살(寶波羅蜜菩薩), 법바라밀보살(法波羅蜜菩薩), 업바라밀보살(業波羅蜜菩薩)이 있다.

사바라밀보살은 일반적으로 비로자나불의 동서남북의 정방(正方)에 배치되어있는데, 특이하게도 사인회에서는 사방(四方)에 있지 않고 비로나자불의 대각선 방향인 사선(斜線)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사인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즉 비로자나불의 대원륜(大圓輪) 안의 네 귀퉁이에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사바라밀보살은 비로자나불께 공양을올리기 위하여 사방의 사불(四佛)이 출현시킨 보살로서, 깨달음의 피안(彼岸)에 도달토록 하겠다는 서원을 지닌 보살들이다.

이 가운데 금강바라밀보살은 번뇌를 타파하여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는 보살이오, 보바라밀보살은 재보(財寶)의 덕(德)을 나타내는 보살로서 보시의 공덕으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보살이며, 법바라밀보살은 제법실상(諸法實相)을 깨닫게 하는 지혜와 그 작용력을 상징하는 보살이고, 업바라밀보살은 갈마바라밀보살이라고 하며 정진을 통해 공덕을 이루게하는 보살이다.

이들이 중존(中尊)을 중심으로 사선(斜線)의 네 귀퉁이에 위치하고 있는 사존(四尊)들이다. 중존(中尊)과 사존(四尊)의 형식이 곧 사인회(四印會)의 구조다. 그런 점에서 비로자나불과 사불(四佛)의 사친근보살(四親近菩薩)의 관계도 중존(中尊)과 사존(四尊)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사인회가 된다. 사인회가 중층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의 비로자나불을 동서남북으로 둘러싸고 있는 사존(四尊)은 모두 사불(四佛)의 상수격에 해당하는 보살로서, 동방아축불의 친근 상수보살은 금강살타이고, 남방 보생불의 친근 상수보살은 금강보보살이며, 서방 아미타불의 친근 상수보살은 금강법보살이고, 북방불공성취불의 친근보살 가운데 상수는 바로 금강업보살이다.

이와 같은 사방(四方)의 사불(四佛)과 사보살(四菩薩)의 배치는 총지종에서 행하고 있는 상·하반기의 49일 진호국가불공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앙의 비로자나불, 동방의 아축불, 남방의 보생불, 서방의 아미타불, 북방의불공성취불, 아축불 곁에 금강살타보살,보생불 곁에 금강보보살, 아미타불 곁에금강법보살, 불공성취불 곁에 금강업보살이 계신다'고 관하는 것이다. 이는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근거하는 바이며, 이와 같은 존상(尊像)의 배치를 관하는 것을 만다라관(曼荼羅觀)이라 하며, 총지종에서는 오불(五佛)과 사보살(四菩薩)을 관한 다음에 태장계만다라의 사대명왕과 사대천왕을 관한다. 이것이 총지종의 진호국가불공의 만다라관법(曼荼羅觀法)이다.

중앙의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배열해있는 사보살(金剛四菩薩)은 사불(四佛)의 친근보살인데, 동방의 금강살타(金剛薩埵)는 아축불의 곁에 있는 보살로서 금강견고한 보리심을 구족한 보살이며 보현보살과 동체(同體)로 여겨지고 있다. 대일여래의 설법을 청문하는 자리에 가장 선두에 자리잡고 있는 보살이다. 중생을 보리심으로 이끄는 보살이다. 흔히 금강수보살, 집금강, 금강수비밀주, 지금강, 보현살타 등으로 불린다.

남방의 금강보보살(金剛寶菩薩)은 보생불 곁에 있는 보살로서 마니보(摩尼寶)를 지니고 중생들에게 안락과 만족을 시여하는 보살이다. 중생들의 끝없는 서원을 모두 들어주는 보살이라 하여 허공장보살(虛空藏菩薩)의 동체(同體)로 보고있다.

서방의 금강법보살(金剛法菩薩)은 아미타불 곁에 있는 보살로서 아미타불을 대신하여 번뇌에 물든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다. 중생의 본성(本性)은 원래 연꽃처럼 깨끗하므로 그 본성을 일깨우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보살이다. 그래서 관자재보살의 동체(同體)로 보고 있다.

북방의 금강업보살(金剛業菩薩)은 불공성취불 곁에 있는 보살로서 중생을 제도하고자 불철주야로 활동하고 있는 보살이다.

이와 같이 사불(四佛)의 친근보살인 사보살은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펼쳐져 있다. 이러한 형태가 사인회(四印會)의 기본적인 구조다.

사인회는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사방에 네 분의 보살이 있고, 다시 사선(斜線)방향에 사보살(四菩薩)이 배치되어 있다.

이 가운데 사방의 사보살은 16대보살 가운데 상수가 되는 친근보살이고, 사선 방향의 사보살은 비로자나불을 공양하기위해 출생된 보살이다.

이 보살이 사바라밀보살(四波羅蜜菩薩)이다. 사바라밀보살은 비로자나불을 공양하기 위해 출현한 보살이므로 비로자나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보살이고, 사방에 위치해 있는 사보살은 사불(四佛)을 보조 역할을 하는 보살이므로 사불(四佛)과 관련이 깊다.

사인회에는 위의 팔보살(八菩薩) 외에네 분의 보살이 더 있는데, 바로 사공양보살(四供養菩薩)이다. 사공양보살은 비로자나불이 사불(四佛)에게 공양하기 위해 출생시킨 보살들이다. 공양보살에는 모두 여덟 존(尊)이 있으며, 이를 팔공양보살(八供養菩薩)이라 한다. 그 가운데 비로자나불이 사불(四佛)에게 공양하기 위해 출생시킨 보살을 내사공양보살(內四供養菩薩)이라 하고, 반대로 사불(四佛)이 비로자나불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 출생시킨 보살을 외사공양보살(外四供養菩薩)이라 한다.

내사공양보살(內四供養菩薩)은 비로자나불이 있는 대원륜(大圓輪)을 중심으로 안쪽의 네 귀퉁이에 있기 때문에 내부의 사공양보살(四供養菩薩)이라 하고, 외사공양보살(外四供養菩薩)은 대원륜(大圓輪)의 바깥쪽의 네 귀퉁이에 있으므로 외부의 사공양보살(四供養菩薩)이라 한다.

이들 보살은 비로자나부처님과 사불(四佛)간의 상호 공양 관계에 있는 보살이므로 공양보살이라는 이름 붙여졌다.

팔공양보살 가운데 사인회에 등장하는 공양보살은 내사공양보살(內四供養菩薩)이다. 대원륜(大圓輪)의 안쪽에 있는 보살로서 여기에는 금강희보살(金剛喜菩薩), 금강만보살(金剛鬘菩薩), 금강가보살(金剛歌菩薩), 금강무보살(金剛舞菩薩) 등이 있다.

금강희보살(金剛喜菩薩)은 비로자나불이 아축불에게 공양하기 위해 출생시킨 보살로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보살이오, 금강만보살(金剛鬘菩薩)은 비로자나불이 보생불에게 공양하기 위해 출생시킨 보살로서 보배의 꽃다발을 주는 보살이다. 금강가보살(金剛歌菩薩)은 비로자나불이 아미타불에게 공양하기 위해 출생시킨 보살로서 설법의 덕을 노래로써 전해주는 보살이며, 금강무보살(金剛舞菩薩)은 비로자나불이 불공성취불에게 공양하기 위해 출생시킨 보살로서 정진의 덕(德)을 춤으로 나타내는 보살이다.

이와 같이 사인회에는 비로자나불과 금강사보살(金剛四菩薩), 사바라밀보살(四波羅蜜菩薩), 내사공양보살(內四供養菩薩) 등 총 13존(尊)이 그려져 있는데, 이 가운데 비로자나불과 금강사보살(金剛四菩薩)만이 존상(尊像)으로 그려져 있고, 나머지 사바라밀보살(四波羅蜜菩薩)과 내사공양보살(內四供養菩薩)은 삼매야형(三昧耶形)으로 그려져 있다.

사인회가 비로자나불께 공양올리는 것과 관련이 있어 공양회(供養會)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으나등장인물과 존상의 수에서 차이가 있고,공양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대표급의 보살들만이 배대되어 있다는 점이 공양회와 크게 다르다 다시 말해서 비로자나부처님과 사불(四佛), 사바라밀(四波羅蜜),16대보살, 내사공양(內四供養), 사섭보살(四攝菩薩, 외사공양(外四供養) 등의 37존이 아니라 비로자나불, 사바라밀(四波羅蜜), 16대 가운데 금강사보살(金剛四菩薩), 내사공양(內四供養)의 13존(尊)만이 등장하고 있다.

사인회(四印會)의 13존(尊)의 형태는 다음 회(會)에서 한 분의 존상(尊像)으로그려지는데, 그것은 바로 일인회(一印會)의 비로자나불이다.

화엄의 일즉다(一卽多) 다즉일(多卽一), 상입상즉(相入相卽)의 법문을 밀교의 만다라(曼荼羅)에서 보게 된다.

<다음호에서는 일인회(一印會)에 대해 살펴 본다>

서원성취를 위하여 진언염송과 함께 진언사경을 실천해보십시오

원하는 서원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



엮음 : 법경 종사 (밀교연구소장) / 편찬 :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발행 : 불교총지종 / 인쇄 : 동림기획
면수 : 250쪽 / 법보시 가격 : 1권당 3,000원
구입문의 :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02)552-1080~3

16종의 진언사경집으로 일체재난을 소멸하고 일체서원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 서 원 사 항 >

1. 배우자 및 좋은 사람 만남 발원
2. 사업 원만 발원
3. 취업 원만 발원
4. 건강 원만 발원
5. 선망 부모 및 조상 영식 천도 발원
6. 학업 및 수능 시험 원만 발원
7. 업장 소멸 발원
8. 경제난 해탈 및 생활 향상 발원
9. 아기 잉태 원만 발원
10. 참회 발원
11. 가옥 등 재산 매매 발원
12. 관재 구설 소멸 및 승소 발원
13. 일체 서원 성취 발원
14. 지혜 총명 발원
15. 부부 및 가족, 동료 화합 발원
16. 병고소멸 및 수술원만 발원

천태종, 천태지의 대사 기리는 '천태불법홍포세계평화비' 제막식 봉행

옥천사 비(5월 18일), 정거사 비(5월 20일) 제막



▲ 세계평화비를 둘러보는 도용스님

천태종(총무원장 변춘광)은 천태종을 개창한 천태지의(天台智? 538~597)대사의주요 수행처였던 호북성 당양시 옥천사(5월 18일 오전 8시 30분)와 하남성 광산현의 정거사(5월 20일 오전 8시 30분)에 '천태불법홍포세계평화비'를 제막했다. 그 일환으로 제막식을 가졌다.

천태종은 옥천사와 정거사 '천태불법홍포세계평화비' 제막식에 천태종 종정 도용대종사와 총무원장 춘광스님 등 60여명의 스님들이 참석하고 중국 측에서는 중국불교협회 임원과 해당지역의 불교협회 간부 및 해당 사찰의 방장스님 등 스님과 신도들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5월 18일 오전 8시 30분 열린 옥천사 '천태불법홍포세계평화비' 제막식에서 천태종 종정 도용대종사는 "영산회상의 법연이 동쪽으로 흘러 이곳에 이르렀나니 도량을 이룩한 천태대사의 원력이 느껴지는구나. 법화삼대부 강설하던 대사의 사자후가 아직도 귀의 쟁쟁하니 천오백년의 세월이 무심하지만은 않구나. 교계의 종장들이 모여 수행하던 도량. 용맹정진의 장한 모습은 아직도 선연하구나. 바다와 같은 진리의 세계 아직도 아득한데 오직 한길 무심 기도의 공부를 이어가거라."라는 법어를 내렸다.

총무원장 춘광스님은 기념사에서 "옥천사에 한국의 천태종은 천태지자대사의 유덕이 남아 있는 곳마다 그 크신 덕화를 기리는 '천태불법홍포세계평화비'를 세움으로써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천태불교의 우의를 다지고, 중생제도의 길을 넓혀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 제막식을 계기로 한 중 두 나라의 불자들이 더욱 결속하며 폭넓게 교류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세계에 천태 법화의 밝은 가르침이 두루 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옥천사(호북성 당양시)는 천태지의 대사가 천태종의 핵심 가르침인 천태삼대부 가운데 <법화현의>와 <마하지관>을 설한 곳으로, 이후 율종 밀종 선종 정토종 등 5개 종파의 스님들이 수행하기도 한 유서 깊은 사찰이다.

또한, 5월 20일 오전 8시 30분 열린 정거사 '천태불법홍포세계평화비' 제막식에서 천태종 종정 도용대종사는 "지혜의 공덕 바다 참으로 거룩하여 숙세의 인연은 신비롭구나. 대보살의 성불 길을 발심하였으니 널리 중생 위한 귀의처가 되리라. 법의 등불밝혀 이어온 아득한 세월을 넘어 천태불교의 발상지 대소산 맑은 도량이라. 법화삼매 천태의 묘법이 비치는 곳에 모든 고통 사라지어 안락이 있고 한량없는 큰 기쁨이 솟아 나리니 크나큰 서원 가슴에 담고 정진하여라."라는 법어를 내렸다.

총무원장 춘광스님은 기념사에서 "천태불교의 심오한 원천이 솟아 오른 정거사는 천태종의 종조이신 천태지자대사께서 교관 총지의 바른 법을 세우시어 천태종이 시작되는 뜻 깊은 곳이다."며 "동아시아 천태불교의 중요한 성지이자 전법 교화의 터전인이 곳 정거사에 천태지자대사의 찬란한 유업을 되새기며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비를 세우게 되었으니, 이 또한 인류의 기쁨이고 역사에 길이 남을 경사"라고 말했다.

세계평화와 남북평화통일기원 영산재 및 인류무형문화유산축제

(사)한국불교연산재보존회, 6월 6~7일 신촌 봉원사



(사)한국불교연산재보존회는 6월 6~7일 신촌 봉원사(주지 선암)에서 세계평화와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영산재 및 인류무형문화유산축제를 연다.

이번 영산재는 현충일인 6일 오전 10시반에 열리며, 부처님이 영산에서 행한 설법인 영산회상을 오늘에 재현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봉원사는 현충일 당일 영산재를 봉행해 왔다. 현충일 영산재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 부처님의 참진리를 깨달아 번뇌와 괴로움에서 벗어나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지 선암스님은 "온국민의 염원인 세계 평화와 남북통일, 국운융성을 기원하며 중생구제의 큰 뜻을 널리 알리는 데 있다"며"이번에는 시민과 불자, 외국인이 함께 하도록 판소리와 전통가곡, 국악등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대동한마당을 함께 연다"고 밝혔다.

7일 오후 6시에 열리는 대동제는 김현욱 아나운서의 사회로 구해스님과 일운스님 기봉스님 동희스님 경암스님, 이애주 전통무용가, 남상일 명창, 안소라 명창, 강권순 정가, 가야금 지애리, 대금산조 권용미, 판소리 김웅식, 장구춤 김승애씨등이 출연한다.

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 한국불교와 달라이라마 국제포럼 개최

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이하 추진회, 상임대표 금강스님, 공동대표 진옥스님, 박광서 교수)는 5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달라이라마, 평화와 공존을 말하다'를 주제로 한국불교와 달라이라마 국제포럼을 6월 2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회는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달라이라마를 초청해 오늘날 한국 사회와 종교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세우기 위한 혜안을 얻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국제포럼에 특별히 초청된 티베트 불교의 세계적 석학인 제프리 홉킨스 교수(미국 버지니아대 명예교수)의 '달라이라마와 함께한 나의 작업'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은 달라이라마의 삶과 사상을 생동감 있게 전달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포럼에는 경희대 허우성 교수의 '달라이라마의 자비와 실천사상', 미국 조지아대 이향순 교수의 '달라이라마와 여성불교', 한국교원대 박병기 교수의 '인권문제와 달라이라마' 등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 시대에 나타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달라이라마의 사상에서 찾는다.

이어, 카톨릭프레스 김근수 대표의 '한국사회에서 종교의 역할과 달라이라마 방한의미', 골대 조성택 교수의 '달라이라마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를 발표해 달라이라마 방한추진을 위한 과제와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프리 홉킨스 교수는 3일 오후 2시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티벳대장경역경원에서 티베트어의 번역을 주제로 강연을 가질 예정이고, 7일 오후 4시에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의 특별 세미나에 참여해 '티베트 불교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에 대한 강의 등을 가질 예정이다.

"KBUF 대불련 리더 워크숍" 1박 2일간 50여명 동참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태우, 이하 대불련)는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간 공주의 한국문화연수원과 마곡사에서 '대불련 리더(활동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대불련 각 지부장·임원 및 간사·활동가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조계종 포교부장 무각스님이 함께 자리했다.

무각스님은 법문을 통해 "욕망의 가치를기준으로 열심히 사는 것 보다 불법을 믿고 보살행을 하는 모습에서 본래자신의 성품이 드러난다"며 "대학생 여러분들은 취직과 생활의 걱정을 내려놓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당부했다.

첫날 연수원 다목적홀에서는 '상반기 포교 활동 평가', '조직운영시스템 개편논의', '여름캠프 추진계획' 등을 브리핑과 토론으로 진행했고, 저녁공양 이후에는 연수원 다실에서 포교부장 무각스님을 모셔 법문을 듣고, 간담회를 가지며 소통과 이해의 시간을 넓혔다.

워크샵을 주최한 박태우 대불련 회장은"워크숍을 통해 올해 상반기 각 대학에서진행된 대학생 포교 활동을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유익한 자리였다" 면서 "특히, 포교부장스님을 모시고 진행한 법문과 간담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고 말했다.

한국불교여래종 종정 인왕 대종사 원적

5월 31일 총지종 인선통리원장 약사사 조문



▲ 인왕 대종사 빈소를 조문하는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

한국불교여래종 현 종정 인왕 대종사(대승정)가 지난 5월 28일(토) 새벽 5시 성남약사사에서 원적했다. 법랍 60세, 세수 91세이다.

인왕 대종사(대승정)의 영결식은 오는 6월 1일(수) 오전 8시 성남약사사(031-734-3205)에서 여래종 종단장으로 봉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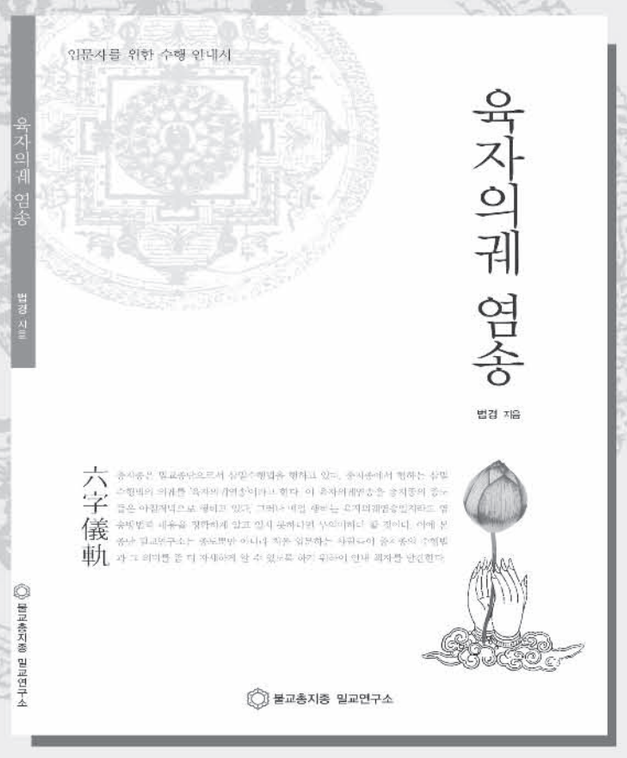
비식은 충북 옥천군 동이면 소재 금강대약사사에서 같은 날 12시에 봉행한다.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정사와 사무국장 서강 정사가 5월 31일 분향소를 방문 참배했다. 스님의 뜻을 기리는 추모재(초재-7재)는 약사사에서, 100재는 충북 옥천 금강대약사사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1926년 경북 고령에서 출생한 인왕 대종사는 일붕 서경보 스님으로부터 연화경 보살계 수지 하였으며, 1958년 관음사에서 법룡 대종사를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였다.

초심자들에게는 '수행입문서'로,
모든 종도(宗徒)들에게는 '수행지침서'로 삼을 수 있는 총지종의 수행 총서(叢書)!

입문자를 위한 수행 안내서
육자의궤 염송



『육자의궤염송』으로 재난소멸과 소원성취를 이루고,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는 '육자의궤 염송의 순서와 방법, 그 의미' 와 함께
총지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진언수행의 목적', '각종 진언의 공덕' , '염주의 공덕' , '사원에서의 예절' ,
'서원당 예절', '불공 예절' 등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다양하게 싣고 있다.

법경 대정사 지음/ 밀교연구소장/ 법천사 주교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발행/ 정가 10,000원 / 114쪽
* 구입문의 : (02) 552-1080~3

※ '육자의궤 염송'에 대한 설명자료와 강의 및 시연은 총지종 홈페이지(www.chongji.or.kr) 심층밀교, 수행법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유물로보는 비로자나불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7호
수타사대적광전 (壽陀寺大寂光殿)
소 재 지 : 강원 홍천군 동면 수타사로 473 (덕치리)
시 대 : 조선시대



▲ 수타사 대적광전

수타사는 신라 성덕왕 7년(708)에 세워 일월사로 불렸다고 전한다. 조선 선조 2년(1569)에 현 위치로 옮겨 지으면서 수타사(水墮寺)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임진왜란으로 폐허로 남아 있던 것을 인조 14년(1636) 공잠대자가 대적광전을 다시 짓고 이후 차례로 건축물을 중건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대적광전은 수타사의 중심 법당으로, 앞면과 옆면이 3칸 규모이다.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이다. 지붕 처마를 받치면서 장식을 겸하는 공포가 기둥 위와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양식이다.

수타사 대적광전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균형이 잘 잡혀있는 조선 후기 불전건물로 평가받고 있다.

자료제공=문화재청

관세음보살 42수(手) 진언

25. 홍연화수(紅蓮華手) 진언



옴 상아례 사바하

온갖 천궁(天宮)에 나기를 원하면
이 진언을 외우라

VISUAL 불교총전

제84화

글/그림 정수일
cafe.daum.net/carissam



내용참조: "불교총전" 업감연기편 p251-9

참나를 찾는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나를찾는여행

모집기간
2016년 5월 2일 ~ 7월 10일까지

대상
- 초(4학년이상), 중, 고등학생
- 팀(5~8명)으로 참가

참가방법
각 사원 주교 및 행사 접수처 문의
T. 02-552-1080~3
E-mail. kongjub@naver.com

나를찾는여행 내용
01 | 5~8명이 한팀이 되어 1박2일간 함께 떠나는 여행
02 | 팀도 자유롭게 장소도 내맘대로
03 | 참가자 1인당 8만원 지급
04 | 멘토(성인) 1명 동반 필수
05 | 여행참가자 한마음캠프 참여 가능

한마음캠프
일시 2016. 7. 25 ~ 7. 27(2박3일)
장소 에버랜드&캐리비안베이
- 나를 찾는 여행 참가자 전원
- 여행 후기도 나누고 문화체험도 즐기고



청소년 바른 인성 형성 프로그램 주최 | 불교총지종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서하보살의 불교문화산책

더위 해소, 선조의 지혜 배우자

부채, 그 속에 담긴 인연

대한민국부채예술대전 6월 29일~7월 5일 인사동 갤러리라메르 3층

연일 폭염주의보다. 5월이면 봄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여름이 성큼 다가온 듯 하다. 올 여름은 9월까지 길어져 몹시도 덥다고 한다. 요즘은 선풍기도 모자라 에어컨이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달래준다. 물론 실내에서만. 실외에서 활동할 때는 아직도 부채가 사랑을 받는다.

성큼 다가온 여름. 부채의 매력 속에 빠져보자.



▲ 2011년 전통미술 대상작(김근식 선생)

부채는 손으로 부쳐서 바람을 일으킨다는 뜻의 '부'자와 가는 대나무 또는 도구라는 뜻인 '채'자가 만나 만들어진 순수한 우리말이다. '손으로 부쳐서 바람을 일으키는 채'라는 뜻이다.

부채를 한자로는 '선(扇)'이라고 하는데 집이나 문을 뜻하는 호(戶)자에 날개를 뜻하는 '깃 우(羽)'를 합하여 만들어진 글자다. 즉 집안에 있는 날개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 종이가 만들어지기 전 새 깃털로 만들었던 옛 부채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전통 부채는 크게 깃털로 만든 우선(羽扇), 자루가 달린 둥근 부채인 단선(團扇), 접었던 폈다 할 수 있는 접선(摺扇), 모양이나 용도가 다른 별선(別扇)의 네 종류로 크게 나눠진다.

우선은 새 깃털로 만든 부채다. 공작새의 깃털로 만든 공작선이나 부채 자루 모양이 학인 학우선도 있다. 단선은 우리말로는 방구 부채라고 한다. 둥근 모양의 부채로 크고 둥근 대원선, 태극 문양을 그려 넣은 태극선 등이 있다.

접선은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부채로 살이 50개인 백접선, 부채의 살에 옻을 칠한 칠선 등이 있다. 접선류 가운데 가장 익숙한 부채가 바로 합죽선이다. 합죽선(合竹扇)은 일반적인 접선이 단죽을 사용한 것과 달리 대껍질로 부채살을 만들었기 때문에 합죽선이라 불렸다.

마지막으로 별선은 부채이면서도 다른 용도를 가진 부채를 말한다. 윤선 합심선, 혼선 등이 별선에 속한다. 윤선은 접었던 부채를 펴면 360도로 펼쳐져서 마치 차바퀴처럼 원 모양이 된다. 부채의 용도보다는 햇빛을 가리는 일산의 역할을 더 많이 했다고 한다.

접선류의 모양인 합심선은 의형제를 맺거나 뜻을같이 하는 사람들의 결의를 나타내는 글귀와 이름 등을 써서 맹세를 나타내는 증표로 사용한 것이다. 미국의 애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는 신미양요 때 강화에서 노획한 전리품 가운데 죽음을 맹세한 병사들이 지녔던 합심선이 남아있다고 한다.

혼선은 혼례식에서 신부가 초례청에 나올 때 얼굴을 가리는 도구로 쓰던 것이다. 진주선은 혼선의 일종으로 주로 조선시대 궁중에서 비빈이나 공주가 혼례 때 얼굴 가리개로 사용했다.

지금은 이렇게 다양한 부채들이 실생활에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스님들은 부채를 어떻게 사용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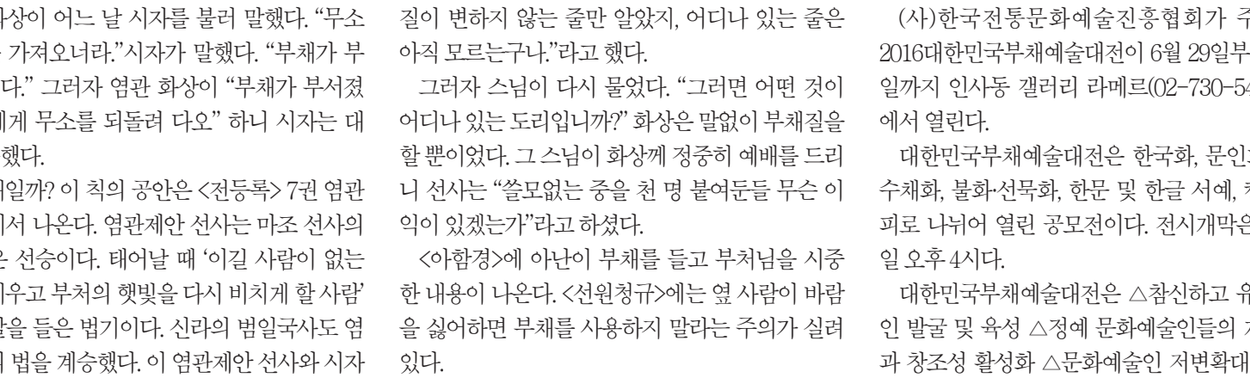
시 '봄날에 부채를 부치면' 한 수 음미하고 가자.

봄날에 부채를 부치면
온갖 꽃 곱게 피고

여름에 부채를 부치면
구름이 일고 비가 오며

가을에 부채를 부치면
모든 나무에 낙엽이 지고

겨울에 부채를 부치면
서리와 눈이 내린다.



▲ 2011년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상 김길환 선생, 용(청, 록, 황)연작

근대 고승, 경봉 큰스님의 시다. 경봉 큰스님께서는 부채에 사계절이 흘러가는 시절인연을 고스란히담았다. 계절이 부채를 부친다고 달라질까? 하지만스님은 자연스레 세상이 돌아가는 인연도리를 부채에 비유한다. 왜 부채일까. <벽암록> 제91칙 염관 화상과 무소뿔 부채 편을 보자.

염관 화상이 어느 날 시자를 불러 말했다. "무소뿔부채를 가져오너라."시자가 말했다. "부채가 부서졌습니다." 그러자 염관 화상이 "부채가 부서졌다면 나에게 무소를 되돌려 다오" 하니 시자는 대꾸하지못했다.

왜 부채일까? 이 칙의 공안은 <전등록> 7권 염관제안 전에서 나온다. 염관제안 선사는 마조 선사의 법을 이은 선승이다. 태어날 때 '이길 사람이 없는 깃대를 세우고 부처의 햇빛을 다시 비치게 할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법기이다. 신라의 범일국사도 염관 스님의 법을 계승했다. 이 염관제안 선사와 시자의 일화는 무더운 여름 선승들이 부채를 부치며 나눈 선담 중의 일부이다. 부채가 부서진 것을 알고도 무소를 돌려달라며 부채에 집착한 것은 부채가 중요해서가 아니다. 부서진 부채에 신경 쓰지말고 본래면목을 제시해보라는 스승의 다독임이다. 부채가 '나'라면 나의 본래면목은 무소뿔과 다름이없다.

중국 마조도일 선사의 또 다른 제자 분주무업 선사도 부채와 얽힌 법거량을 했다. 어떤 납자가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을 묻자 "푸른 비단부채에서 서늘한 바람이 풍족하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분주무업 선사가 푸른 부채를 들었다면 불감혜근 선사는 붉은 비단부채를 꺼내들었다. 혜근 선사의 부채송을 보자. '오색구름 그림자 속에 선인이 나타나 붉은 비단부채를 들고 얼굴을 가리는구나. 얼른 눈을 뜨고 선인을 보아야지, 선인의 손에 든 부채를 보지 말라.'

<선문염송집>에도 부채 일화가 나온다. 마곡산의 보철 화상이 하루는 부채를 부치고 있는데, 한 스님이 와서 물었다. "바람의 성질은 변하지 않아 없는 데가 없거늘, 화상께서는 어째서 부채질을 하십니까?"라고. 화상이 답하기를 "그대는 바람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줄만 알았지, 어디나 있는 줄은 아직 모르는구나."라고 했다.

그러자 스님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어디나 있는 도리입니까?" 화상은 말없이 부채질을 할 뿐이었다. 그 스님이 화상께 정중히 예배를 드리니 선사는 "쓸모없는 중을 천 명 붙여둔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라고 하셨다.

<아함경>에 아난이 부채를 들고 부처님을 시중한 내용이 나온다. <선원청규>에는 옆 사람이 바람을 싫어하면 부채를 사용하지 말라는 주의가 실려 있다.

선사들이 법거량에서 많이 활용한 부채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부채다. 연기법으로 돌아가는 일상에 본래면목만 찾으면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걸, 선사들은 부채를 비유로 들어 설법한다.

부채가 일으키는 바람에만 현혹되지 말고 부채의본래면목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신의 본래면목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며, 선사들이 제시한 길이다.

불교에서 또 부채를 쓸 때가 있는데 바로 의식을 할 때다. 의식용 부채는 주로 부처님을 모셔오는 시련 행렬 때 사용한다. 의식용 부채는 대나무와 목재류로 자루를 만들고 그 끝 부분에 좌우가 대칭되는 둥근 형태에 철재의 테를 두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부채의 양면은 붉은 비단을 배접 하거나 붉은 칠을 하고 수를 놓거나 그림을 그려 넣는데 그려진 형상에 따라 용선, 봉선, 일월선 등의 명칭이 있다.

예전에 비하면 부채 사용량이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부채는 전통과 현대의 미가 살아있는 생활소품이다. 올 여름 어느 해보다 덥다는 예측이 속속 나오는데 부채로 더위를 벗해보면 어떨까? 다양한 부채를 만날 수 있는 전시가 기다린다.

(사)한국전통문화예술진흥협회가 주최하는 2016대한민국부채예술대전이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02-730-5454) 3층에서 열린다.

대한민국부채예술대전은 한국화, 문인화, 민화, 수채화, 불화·선묵화, 한문 및 한글 서예, 캘리그라피로 나뉘어 열린 공모전이다. 전시개막은 6월 29일 오후 4시다.

대한민국부채예술대전은 △참신하고 유망한 신인 발굴 및 육성 △정예 문화예술인들의 개척정신과 창조성 활성화 △문화예술인 저변확대 및 상호간의 친목 도모 △세계 속에 한민족의 정통성과 우수성 소개 △ 자유로운 표현과 창조적이고 진취적이며 현실에 맞게 토의 할 수 있는 문화의 장 개최를목적으로 준비된 공모전이다.

시상은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상, 서울특별시장상·서울시의회 의 장 상 , 한국예술문화 단체총연합회장상. (사)한국미술협회 이사장상, 스포츠조선 대표상, 전통미술대상, 각 부문 대상, 오체상, 우수상, 삼체상 ,특선, 입선으로 이루어진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우리나라 최대의 부채 공모전. 2016대한민국부채예술대전에서 다양한 부채를 만나 더위 날리러 가자. 부채 바람에서 선사들의 깨달음을 엿볼 수 있다면 일거양득이리라.

강지연 구성작가



▲ 2013년 부채예술대전 서울시장상(한민정 선생)



▲ 2013년 부채예술대전 대상작(현명숙 선생)

하와이 무량사 템플스테이

우리불교신문 특별 템플스테이 모집 6월 22일 ~ 28일
문의 : 02)735-2240

하와이무량사 템플스테이 수시 접수중(1개월 이전 신청요망)
하와이무량사 신도 3개월 안거 입방비 1000불(100만원)

"지상낙원 하와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8박 9일 템플스테이 비용 $1,000불과 인천-하와이 항공료를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템플스테이 비용 $1,000불에는 숙식비, 관광비, 입장료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매회 정원은 13~14명이며 매주 수요일에 출발합니다.

항공료는 항공사와 비수기, 성수기(7~8월)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2016년 3월 할인항공권으로 하와이안 항공은 1,100,000원, 아시아나 항공은 1,200,000원, 진에어 600,000원 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하와이 무량사 조실 진 불 장 혜성 주지 도 현





● 전화 : 1-808-735-7858, 372-6062 | ● 홈페이지 : www.hawaiimuryangsa.com | ● 이메일 : info@hawaiimuryangsa.com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종.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서원합니다.
불교총지종
평화의 등
하반기 49일 불공
5월 28일 ~ 7월 15일
매일 오전 10시
전국 각 사원
불교총지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역삼동) | Tel. 02)552-1080~1083 | Fax. 02)552-1082 | www.chongji.or.kr